

# 미 하원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 통과

의원 이어...364대 62로 처리

바이든 서명 이후 공식 발효

증오범죄 신속 처리하고 지원 확대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은 공식 발효된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64, 반대 62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94대 1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들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증오범죄 방지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2달 만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의 아시아인 여성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법안은 대유행 관련 증오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관리를 배치하고,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주(州) 및 지방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대유행을 묘사하는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멩 하원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는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견디는 데 지쳤다"며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면서 그들의 아이들과 노부모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지쳐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불만을 표실했다. 공화당

의 짐 조던 하원의원은 폭력에 대한 광범위한 비난이 있다면서도 공격이 '민주당 도시들'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의 일부 측면에 문제를 제기했다.

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도 "의도는 좋지만 결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서도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법안 지지를 표명했고, 같은 당 미셸 박스틸 하원의원 역시 "협을 퇴치하는 것은 초당적인 것"이라며 옹호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1년간 50개 모든 주에서 거의 3천800건의 반(反)아시아태평양계

(AAPI)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사업체가 파괴되고 노인이 공격당했고 가족들이 두려움에 처했다"며 "반 AAPI 편협성의 확산은 우리나라 양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적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슬프게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은 이 나라 역사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대유행으로 낡은 편견이 표면화됐다"며 "오늘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인종차별과 폭력에 대한 싸움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 또 다른 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18일(현지시간)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오른쪽) 하원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이 바라보고 있다. 하원은 이날 찬성 364, 반대 62의 압도적인 표 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연합뉴스

# “시세조종자 없애자”... ‘머스크 타도’ 가상화폐까지 등장

투자자들 욕설에 테슬라 불매운동

발행 뒤 수백·수천% 폭등했다 급락

비트코인 때리기와 도지코인 띄우기 행보로 가상화폐 시장에 있던 충격파를 안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을 들었다 놔다 하는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난 투자자들이 욕설을 담은 해시태그를 트위터에 올리고 테슬라 불매운동에 나선 데 이어 머스크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가상화폐까지 발행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벤징가 등에 따르면 ‘스토필론’(STOPELON)이라는 단체는 가상화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머스크에 전쟁을 선포하며 단체인명과 같은 이름의 가상화폐를 출시했다. 이 단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머스크는 트위터로 가상화폐 시장을 무책임하게 조작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스토필론’의 목표는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시세조종자(머스크)를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머스크는 사람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장난질을 하고 있다”며 “그는 나르시시즘적인 억만장자이고 앞으로는 항상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필론’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 경영권을 확보한 뒤 머스크를 해임하겠다는 다소 허황한 구상도 밝혔다.

또 가상화폐 시장에는 최근 머스크에 대한 욕설을 그대로 담은 코인(‘F\*\*\*ELON’)도 등장해 온라인 토론방 레딧과 유튜브 등에서 화제를 모았다.

유명 유튜브 로건 폴은 이 가상화폐를 두고 “머스크가 달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달에 간다”면서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달에 보내는 ‘맘’(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나 영상)으로 가격 급등을 초래했던 것을 비꼬기도 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반(反)머스크’ 가상화폐에 대해 “머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진단했고, 뉴스위크는 “머스크의 명백한 시장 영향력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신중하지 못한 머스크의 입을 비판하며 발행된 이러한 가상화폐들도 출시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스톱일론은 한때 512% 오른 뒤 폭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고, 머스크를 욕하는 코인도 출시 직후 무려 5700% 급등했다가 그대로 추락했다.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커지며 온라인에는 머스크를 비판하는 청원 운동도 등장했다.

온라인 사이트 ‘체인지’에 올라온 이 청원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사기꾼(머스크)의 충고에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머스크의 놀이는 증권 사기와 같고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미 구축함 대만해협 또 통과 중 “평화·안정 해치는 행위” 반발

필리핀해 자위대와 훈련 사진도 공개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이 날카롭게 대립 중인 가운데 미국 구축함이 중국이 자국의 ‘앞바다’로 간주하는 대만해협을 또 통과했다.

미 해군 7함대는 18일(현지시간) 인터넷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커티스 윌버함이 이날 국제법에 근거해 통상적 대만해협 통과를 했다고 밝혔다.

7함대는 “대만해협 통과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에 허용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계속해서 날아가고, 항해하고, 작전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월 이후 미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매달 한 번 꼴이다.

미 해군은 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일본 자위대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필리핀해에서 연합

훈련을 하는 사진도 동시에 공개했다.

정확한 훈련 위치를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대만해협과 연결된 필리핀해의 일부는 대만과 매우 가깝다.

미중 관계가 신냉전 수준으로 악화한 가운데 양국은 대만 주변 바다와 하늘에서 군사 활동 빈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긴장도 역시 부쩍 높아졌다.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에 중국은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미국 측의 행위는 ‘대만 독립분자’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지역 정세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동부전구는 미군 구축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프랑스, 유엔 안보리에 이-팔 휴전 결의안 제출

이집트·요르단 정상과 제출 합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FP,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이날 성명에서 프랑스, 이집트, 요르단 정상이 화상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 제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엘리제궁은 “세 국가는 발표를 멈춰야 하고, 휴전협정을 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으며, 안보리가 이러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세 가지 사

안에 동의했다”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는 데도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집트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장관들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휴전을 촉구했다. 다만 이스라엘 최측근 동맹국인 헝가리는 휴전 촉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휴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사망자가 각각 12명, 최소 213명 나왔다. 이 중에는 어린이도 61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중국, 한번 맞으면 되는 자국산 코로나백신 출시

접종 개시...6개월 이상 면역 효과

중국이 한 번만 맞으면 면역 효과를 볼 수 있는 자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출시했다.

19일 평파이 등에 따르면 캔신노바이오 및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 연구소가 개발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돼 전날 상하이부터 접종을 개시했다.

기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시노팜(중국의약그룹)과 시노백 제품은 2차례 접종을 해야 면역이 완성된다. 하지만 이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백신은 지난 2월 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출시를 준비해왔다. 상하이 질병통제센터는 시노팜 등 기존의 중국산 불활성화 코로나19 백신들과 기술 원리와 제조 방식이 매우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신 안전성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접종 가능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기존 백신들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백신을 맞으면 면역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질병통제센터 측은 “백신 연구개발 기간이 길지 않아 이 백신의 면역 지속성에 대해 관찰하고 있다”면서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술을 사용한 에볼라 백신의 경우 접종한 뒤 2년까지 충분한 면역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